

## 12. 야요이-고분 고고학적 단절 현상: 후기 고분문화

### Motivational Episode

3세기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은 왜인들이 「남자는 바느질도 안 한 가로 폭의 천을 단순히 묶어 연결시킨 옷을 입고, 여자는 넓은 천 한복판에 구멍을 뚫고 머리를 넣어 입었다(其衣橫幅但結束相連略無縫 婦人被髮屈紒作衣如單被窄其中 貫頭衣之)」고 기록을 했다. 야요이 시대 청동 방울에 인각된 판화에는 남미 원주민들이 입는 한 장의 천으로 된 외투인 판초 모양의 옷을 입은 사람이 묘사되어 있다.

북사(北史)는 일본열도 사람들이 「예전에는 바느질을 하지 않은 가로 폭의 천을 그대로 연결해 입었는데(故時衣橫幅結束相連而無縫) 이제는 남녀가 치마와 저고리를 입으며, 남자 저고리의 소매는 매우 작고, 여자의 치마는 가장자리에 주름 선이 둘러져 있다(男子衣裙襦 其袖微小 履如屨形 漆其上 繫之脚...婦人 束髮於後 亦衣裙襦 裳皆有襪)」고 말한다. 다카마쓰즈카(高松塚) 고분의 벽화를 보면, 여자들이 길고 테를 두른 저고리와 주름을 잡은 치마를 입고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593년 1월 15일, 법흥사(法興寺) 사탑 초석 속에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 했다. 13세기 초에 엔랴쿠지(延曆寺) 고엔(皇圓)이 편찬한 부상략기(扶桑略記)에 의하면, 당시 사리 안치 행사를 할 때, 소가 우마꼬(蘇我馬子) 대신을 비롯하여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백제」 옷을 입고 나타나, 보는 이들을 매우 즐겁게 해 주었다(嶋大臣并百餘人 皆着百濟服 觀者悉悅).

북사, 주서(周書), 수서(隋書)에 의하면, 백제 남자들의 복장은 고구려 남자들의 복장과 흡사 하고(衣服與高麗略同), 모두 양쪽에 새털을 꽂아 올린 모자를 쓰고 있으며(冠兩廂加翅), 백제 여자들은 치마와 넓은 소매가 달린 옷 저고리를 입었다(婦人衣似袍而袖微大). 주서는 백제의 처녀들은 뒤로 머리를 땀아 묶어 올리는데 한 다발은 장식으로 늘어뜨렸으나, 부인들은 두 개의 다발로 묶어 올렸다(在室者編髮盤於首後垂一道爲飾 出嫁者乃分爲兩道焉)고 말한다. 북사와 수서는 백제의 처녀들은 머리를 땀아 뒤로 늘어뜨렸으나, 부인들은 두 갈래로 머리를 엮어서 틀어 올렸다(女辨髮垂後 已出嫁則分爲 兩道盤於頭上)고 말한다. 하지만 북사나 수서나 고구려 여인들이 머리를 땀아 늘어뜨렸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북사에 「뒤로 늘어뜨렸다(垂後)」는 서술은 특이하게 백제 여인들에게만 쓰였다. 우리가 다카마쓰즈카 고분 벽화에 나오는 여인들의 머리 모양을 보면, 그녀들이 수서와 주서에 묘사되어 있는 백제 여인들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들의 머리 모양은 4-5세기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나는 시녀들의 머리 모양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 야마도 왕조의 성립: 후기 고분시대

일본열도의 신석기 조몽(繩文c.10,000-300 BCE) 수렵-채집(hunting-gathering) 문화는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이룩한 것이며, 청동기-철기 야요이(彌生 c.300 BCE-300 CE) 쌀농사 문화는 한반도 남부의 가야 사람들이 건너가 아이누-말라요폴리네시아 원주민들과 함께 이룩한 것이다. 고분(古墳)시대 초기(c.300-400) 문화는 야요이 문화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고분시대 후기(c.400-700) 문화는 4세기 말경에 백제 사람들이 건너가 세운 일본열도 최초의 통일 국가인 야마도 왕국이 이룩한 것이다.

###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이룩한 신석기 조몽(繩文) 문화

빙하기 말기에 시베리아로부터 일본열도 북방의 사할린-북해도 지역으로 건너 온 아이누족은 열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토기 사용 이전의) 구석기 시대를 전개했다. 또 한편, 빙하기가 끝나기 이전 어느 때인가 말라요-폴리네시아 사람들이 동남 아시아로부터 필리핀-대만-류큐군도(琉球群島)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따라 일본열도 남쪽의 류슈 지역으로 건너와 정착을 했고, 그 일부는 혼슈(本州)로 건너갔다.

유전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이누족은 동남 아시아 사람들 보다는 북방 몽골로이드에 가깝다.<sup>1</sup> 북해도와 혼슈 북부의 지명에는 아이누 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혼슈 남서부나 류슈에서는 아이누 말처럼 들리는 지명이 발견되지 않는다.<sup>2</sup> 이 사실은 신석기 조몽 토기의 특징이 나고야 주변을 경계로 하여 일본의 남서부와 동북쪽이 대조

<sup>1</sup> 북해도에서 발굴된 아이누족 유골은 형태학적으로 북방 몽골로이드와 매우 가깝다. 마이토콘드리아 DNA 분석에 의하면 아이누족과 오키나와 사람들 사이에는 유전적 친근성이 없다. Hudson (1999: 64-67, 71-72 과 76-78) 참조.

<sup>2</sup> Diamond (1998: 11)

를 이루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기원전 1만 년경, 신석기 조몽 문화의 전개와 동시에 일본열도 사람들은 작살과 낚시 바늘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고, 돌과 뼈로 만든 도구를 가지고 사냥과 채집을 하고, 조몽 (새끼줄) 문양을 한 토기에 음식을 끓여먹었다. 놀랍게도 조몽시대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의 전개와 동시에 토기를 제작해 사용 했다.<sup>4</sup> 손으로 빚어 노지에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 구어 낸 조몽 토기는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토기로 알려져 있다.

신석기 일본열도의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당시 한반도에 살고 있던 예맥 통구스족과 거의 접촉이 없었다: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제각기 자급 자족적인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상호간 접촉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 한반도로부터의 야요이 이주(移住) 물결: 원 일본인(原日本人)의 형성

기원전 300년경, 벼를 경작하고, 회전 선반을 돌려 토기를 제작하던 한반도 남부의 사람들이 좀더 따뜻하고 습한 북 큐슈 평야 지대로 건너오기 시작하였다.<sup>6</sup> 그들은 주로 변한의 가야 땅에서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 중 일부는 혼슈로 건너가, 계속

<sup>3</sup> Imamura (1996: 112) 참조.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가깝지 않다. Nei Masatoshi, “The Origins of Human Populations: Genetic, Linguistic, and Archeological Data,” *The Origin and Past of Modern Humans as Viewed from DNA*, ed. By Sydney Brenner and Kazuro Hanihara,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1995, pp. 71-91; Omoto Keiichi, “Genetic Diversity and the Origins of the Mongoloids,” *ibid.*, pp. 92-109; Omoto Keiichi and Saitou Naruya, “Genetic Origins of the Japanese: A Partial Support for the Dual Structure Hypothesis,”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02, 1997, pp. 437-446, 등 참조.

<sup>4</sup> Diamond (1998: 5) 와 Barnes (1993: 27) 참조. 일본열도에서는 기원전 1만 년경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 된지 9,700 여 년이 지난 후에야 농업이 도입되었다. 중동 지역에서는 기원전 8,000 년경에 농업이 발명되고, 그로부터 1,000 여 년이 지난 후에 토기가 출현했다. 일반적으로 “정착 농경” 사회에서 토기를 만들어 사용한다. 그런데, 일본열도는 식량 자원이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사냥-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토기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일본의 산림지역들은 식용 나무 열매가 풍부했고, 내륙의 강들과 일본열도를 둘러싼 바다에는 어류, 조개류, 해조류가 넘쳐났기 때문에 조몽 사람들은, “떠돌이”가 아니라, “정착한” 사냥-채취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sup>5</sup> Nelson (1993: 107) 인용.

<sup>6</sup> Barnes (1993: 170) 참조.

해서 동쪽과 북쪽으로 이동을 해 갔다. 이들은 일본열도에서 신석기 수렵-채취 조몽 문화를 이룩한 원주민들과 합류하여 본격적인 『야요이』 쌀농사 문화를 전개했다. 마침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인종적 가교(假橋)가 형성된 것이다.<sup>7</sup>

원(原)일본어를 공유하는 원(原)일본인은, 비교적 평화스러운 유전적 융합과정을 거치면서, 야요이 600년 기간 중에 형성되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모두 알타이어의 범-통구스 계통에 속하지만, 어휘나 음운 측면에서 보면 일본어는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언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조몽 사람들이 야요이 사람으로 진화하여 마침내 현대 일본인을 형성 했다는 이론은, 1990년대에 들어와, 현대 생물인류학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현대 일본 사람들 유전 인자의 65% 정도가 한반도 사람에게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본토나 한반도에 비하면, 일본열도에서는 아주 늦게 농업이 시작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형태의 농업이 급작스럽게 신석기 일본열도에 밀려온 셈이다. 한국식 움집(수혈 주거)과 저장 창고를 포함하는 야요이 쌀농사 문화는 일본열도 전역으로 서서히 확산되었다. 하지만 조몽 문화의 전통도, 특히 일본의 동부와 북부 지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존했다. “중국과 한반도에서는 야요이 시대가 시작될 무렵, 돌을 깎아 만든 석기의 생산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야요이 시대의 돌로 깎아 만든 석기들의 존재는 분명히 조몽 석기전통의 존속을 의미한다.<sup>8</sup>

목이 좁은 저장용 토기 단지와 아가리가 큰 조리용 토기 냄비, 손잡이가 달린 쟁반을 포함하는 초기 야요이 토기들이 조몽 말기의 토기와 함께 북부 큐슈 지역에서 발굴되었는데, 그 형상을 보면 조몽 토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기 야요이 토기들의 대부분은 붉은색을 띠는 한반도의 무문토기와 거의 구분을 할 수가

<sup>7</sup> Hudson (1999: 59-81) 참조. 야요이 토기는 고운 진흙을 가지고 회전 선반 위에서 모양을 완성한 다음,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구워 만들었다. 외형이 세련되고, 불그스름한 갈색 혹은 누르스름한 백색을 띠었다. 야요이라는 명칭은 이 새로운 형태의 토기가 처음으로 1884 년에 발굴된 장소(東京都文京區彌生町)의 이름인 것이다. 기원전 900 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탄화미(炭化米)가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일본열도의 본격적인 “미작 문화”는 300 BCE-300 CE 기간 중에 전개된 것이다.

<sup>8</sup> Imamura(1996: 149) 인용.

없다.<sup>9</sup>

통상적으로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의 순서로 발전을 하는데, 일본 열도에서는 청동기와 철기가 쌀농사와 더불어 동시에 전개된다.<sup>10</sup> 상당량의 동으로 만든 단검, 도끼 창, 거울, 방울 등이 야요이 유적지에서 출토되었다. 동경이나 청동 방울뿐 아니라, 청동 단검과 도끼 창도 전투에서 사용하는 무기로서보다는 주로 종교적 의식의 도구로서 만들어졌던 것 같다. 한반도에서 “본래 좁고 굵고 형태이었던 무기들이 (일본열도에 와서) 실제 무기로서의 기능을 훼손하면서 얇고 넓은 형태로 바뀌었다.”<sup>11</sup>

야요이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 철제 낫을 사용 해 벼 줄기의 밑 부분을 자른 것이 아니고, 반원형 돌 칼에 작은 구멍을 내고 끈을 꿰어 (손에 감고) 벼 이삭의 바로 아래를 잘랐다. 그런데 돌 칼로 벼 이삭의 바로 밑을 잘라 추수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했을 것이다. 일본열도 야요이 농부들의 쌀 경작 기술은 당시 한반도 남부 농부들의 쌀농사 기술 수준을 반영했었을 것이다.

야요이 유적지에서 청동기 유물은 상당히 많은 양이 발굴되는데 비해, 철로 만든 도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야요이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손 도끼를 만들었고, 그 돌 도끼로 나무를 잘랐다. 또 나무로 쟁기, 괭이, 칼, 삽과 같은 농기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릇, 신발, 절구 등도 나무로 만들었다. 실제로 발굴된 농기구는 거의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목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제 도구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는 기원전 500년경부터 이미 거대한 용광로(高爐 blast furnace)와 주조(moulding) 공법을 사용하여 철 제품을 대량 생산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기원전 400년경 이후부터, 스키타이 유목민 모양, 풀무질을 하여 괴철로(塊鐵爐 bloomery furnace)에서 소규모로 철괴를 만들고, 불에 달군 쇠 덩이를 모루 위에 올려

<sup>9</sup> Imamura(1996: 164-5)는 한반도 남단에서 발견되는 야요이식 토기의 수량에 주의를 환기 해, “한국의 늑도 유적지에서 발굴된 토기중의 8%가 야요이식 토기이지만...(부산의) 예성 유적지에서 발굴된 토기는 94%가 야요이식 토기”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sup>10</sup> 청동을 주조하는 원료를 한반도에서 가져왔는데, 그 양이 작았고 공급원 자체가 불안정했다. 청동을 “가라 가네”라고 불렀는데, 한철(韓鐵)을 의미한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한국을 “가라”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건너온 사람들 대부분이 가야 (가락)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708년에 무사시 지역에서 동광(銅鑛)이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일본열도에서 소위 와도오(和銅)시대가 시작된다.

<sup>11</sup> Imamura (1996: 171) 인용.

놓고 두드리는 단조(鍛造 forging) 공법으로 철 제품들을 만들었다.

일본열도의 “야요이 유적지에서는 철광석을 제련한 흔적이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 일본 국내에서 선철(銑鐵)을 생산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다.”<sup>12</sup> 위서 동이전에는, 변한 사람들이 철을 왜인들에게 (즉, 바다 건너 큐슈에 정착한 가야 친족들에게) 공급해주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동이전은, 마치 중국 시장에서 동전이 사용되는 것처럼, 변한 (가야) 시장에서는 거래를 할 때 교환의 수단으로 철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가네”라 하면 지금도 돈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철을 의미한다.<sup>13</sup> 한반도 남부에서는 당시의 제철 유적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 야요이 이주 물결의 타이밍: 왜 기원전 300년경에 움직였을까?

한반도 북부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 이전부터 기장(조, 수수)을 재배했으며, 남부에서는 쌀을 재배했다. 기원전 1,500-1,000년 기간 중 언제 인가부터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기원전 400년경부터는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Diamond(1998: 7)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했다: “한국 해협 바로 건너편에서 수 천년 동안 이 모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일본열도에서는 여전히 석기를 가지고 계속 수렵-채취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도대체 신석기 조몽 문화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가?”

맑게 개인 날, 한반도 남동쪽의 부산 지역에서는 육안으로 대마도를 볼 수 있다. 대마도 남쪽 끝에서는 이끼섬이 보이고, 이끼섬 남쪽 가까운 거리에 큐슈가 있다. 사람들은 다른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배만 부르면) 게으르다 하니 한반도 사람들이 수평선 저쪽을 그저 바라만 보았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기원전 300년경에 그들로 하여금 바라보기를 멈추고 바다를 건너게 하였을까?

기원전 400년경에 소 빙하기가 시작되어,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기원후 300년경까지 계속되었다.<sup>14</sup> 갑작스런 소 빙하기의 시작은, 동양에서는 호전적인 흉노 유목민족

<sup>12</sup> Imamura (1996: 169) 인용.

<sup>13</sup>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sup>14</sup> K. W. B., ed., "Climate Variations and Change",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Chicago:

의 발흥과 7패(七覇)가 등장하는 본격적인 전국시대(403-221 BCE)의 전개와 일치 하며, 서양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향한 켈트족의 대 이동과 일치한다. 기원전 390년, 갈리아족 이라고 부르는 사나운 켈트 전사들이 로마 자체를 포위했었다.<sup>15</sup>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현상은, 맬서스 인구론이 말하는 성격의 전쟁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또,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의 한반도 남부 해안지역에 살고 있던 가야 사람들 일부가 보다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땅을 찾아 대한해협을 건너게 했을 수 있다.<sup>16</sup>

사람이 사는 조건이 편해지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내리는 비에 의존하면서, 습지대 혹은 늪지대 인근에서 쌀을 재배하는 원시적인 쌀농사 기술을 가지고도, 인구는 매 세대 마다 두 배로 늘어날 수가 있다. 한반도 남부에서 쌀을 경작하기 시작한지 천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인구는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갑작스런 가뭄과 기온 저하는 생태학적인 균형과 공동체의 안정을 파괴할 것이다. 원시적인 쌀 재배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준 이하로의 기온 및 강수량의 저하는, 갑작스런 변화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농경기술을 혁신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 농부들로 하여금 새로운 땅을 찾도록 강요한다. 여기서 한반도 남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기로 결정한 시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남쪽 수평선 위에 어렵듯하나마 눈에 익은 모습의 섬들은 곤경에 빠진 농부들 마음속에 따뜻하고 비가 많은 꿈속의 나라를 연상하게 만들었다. 기후 조건의 급격한 변화의 충격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오랫동안 그저 바라만 보던 땅에 새삼 주목을 하게 만든 것이다.

Barnes(1993: 171, 176)는, 조몽 문화에서 야요이 문화로의 변화는 일본열도에서 물질 경제의 전반적인 재구성을 의미하는데, “북큐슈는 야요이 문화 형성에 부화기 역할을 하였다”고 말한다. 야요이 600년의 문화는 전쟁이나 정복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한반

Encyclopedia Britannica, 1986), Vol. 16, p. 534; P. A. Mayewski and F. White, *The Ice Chronicles: the Quest to Understand Global Climate Change* (Hanov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2), p. 121; H. H. Lamb, *Climate, History and the Modern World* (London: Routledge, 1995), p. 150.

<sup>15</sup> 극지방 빙하권의 확장은 관개시설이 잘된 페르시아 제국(525-330 BCE)의 멸망과 그 뒤를 이은 단명의 알렉산더 제국(336-323 BCE)의 붕괴 시기와도 일치한다.

<sup>16</sup> Wontack Hong, “Yayoi Wave, Kofun Wave and Timing: the Formation of Japanese People and Japanese Language,” *Korean Studies*, Volume 29, 2005, pp. 1-29, 참조.

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아이누, 말라요-폴리네시아인 사람들과 서서히 융합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일본 열도의 고고학적 전환기: 야요이-초기고분(300-400)-후기고분(400-700)

600년에 걸친 야요이 시대를 이어 고분시대(300-700)가 전개된다. 전통적으로 일본 열도에서의 고분시대는 초기(300-400), 중기(400-500), 후기(500-700)로 구분되었다. 초기 고분시대 분묘들은 비교적 소규모 이지만, 한반도 남부의 가야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무덤들을 언덕 위에, 혹은 산 등성이에 축조해서 아래로 눈을 굽어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적은 인력을 동원해도, 얼른 보기에는 크고 위압적인 인상을 주는 무덤들을 만들 수 있었다. 초기 고분시대의 가야식 분묘 형태는, 300년경 이후 한반도 남부로부터 다시 한번 가야 사람들의 이주의 물결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초기 고분시대 문화는 동검, 동경, 보석 등을 실용성 보다는 종교적, 의식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야요이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전형적으로 언덕 위에 구덩이를 파고, 안에 목관을 넣은 다음, 관 주위를 돌로 둘러싸고 위에 돌 판을 덮었다. Egami는 야요이 후기 문화와 초기 고분시대 문화가 연속선상에 있으며, 그 기간 중 발생한 변화는 야요이 후기에 사회적 계층화(stratification) 심화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17</sup>

그러나 후기(400-700) 고분들은 평지에다가 거대한 규모의 전방 후원분(前方後圓墳) 혹은 원분(圓墳) 형태로 축조되었다. 초기 고분에서 볼 수 없는 각종 말 장신구, 경질 토기,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금동관, 금동 귀고리, 곡옥, 혁대고리, 등을 관 속, 혹은 관 주변에 부장품으로 매장했다. 가장 눈에 띄이는 사실은, 말 뼈와 말에 관련된 다양한 도구가 별안간 출현한다는 것이다. 3세기 말에 편찬된 위서 동이전은 일본열도에 말이 없다고 기록하였다.<sup>18</sup> 일본서기는 백제로부터 말의 공식적 도래를 오오진 15년(404) 조

<sup>17</sup> 600년의 야요이 기간 중, 사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으로 분화되었다. 초기 고분시대에 들어와 한층 두드러진 사회 계층화가 이루어져 비교적 대규모의 고분들이 등장하지만, 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스럽고 주술(呪術)종교적인 야요이 사람들이었다.

<sup>18</sup>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倭 . . . 其地無牛馬



에 기록 하고 있다.<sup>19</sup> 말 뼈 혹은 말과 관련된 도구들은 초기 고분에서 발굴된 적이 없다.<sup>20</sup> 고고학적으로 보면, 400년경에 이후에 일본열도에 말이 도래한 것이다. 반면 한반도에서는,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 비문을 보면, 5만의 고구려 보병과 기병이 (407년에)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나온다.<sup>21</sup>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의 대량 출토 역시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초기 고분문화의 후기 고분문화로의 전환은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중국 정사에서 일본열도 관련 기록이 사라진 266-413 기간은, 일본열도 자체의 고고학적 대 변혁기이었다.

Egami는 고분시대 중기와 후기의 문화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반면에 초기의 문화는 이들과 현저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근거로, 중기와 후기를 통합하여 전통적인 (초기-중기-후기) 3분법을 (전기-후기) 2분법으로 수정했다. Egami(1962, 1964)에 의하면, 본질적인 고고학적 분기점은 초기 고분시대 끝 무렵에 가서 단 한번 발생한 것이다.

Egami에 의하면, 후기 고분시대의 문화는 호전적인 지배계층의 세속적인 취향을 보여주며, 북 아시아 기마민족의 실용적, 전투적, 귀족적 성격을 시사한다. 무기는 더 이상 종교적 의식의 도구가 아니었으며, 실제 사용되었던 무기들이 부장품으로 묻히게 되었다. 후기 고분들에서는, 철제 말 재갈, 목제 혹은 철제 등자, 안장, 마구에 부착하는 청동 방울, 말 투구, 말 갑옷 등의 유물을 포함해서, 말을 타는 사람들의 물품이 대량 출토되었다. 이들 고분에는 대량의 (칼, 창, 갑옷, 화살촉, 투구, 등) 철제무기, 회색의 경질 토기, 금동관, (사슬이 달린) 금 귀고리, 혁대 고리, 노리개, 신발, 잎 모양 등을 한 작은 금제품들, 옥 귀걸이, 동경, 구슬등과 같은 개인 장신구, 식기류, 사후 저 세상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 다양한 물품들, 철제 농기구, (배, 남자와 여자, 짐승 등 형상의) 점토로

<sup>19</sup> 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 牝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 (K: 248)  
 應神 十五年 秋八月 百濟王遣阿直伎 貢良馬二匹 卽養於輕坂上廐 因以阿直伎令掌飼 故號其養馬之處 曰廐坂也 (NI: 371)

播磨國風土記 飾磨郡 少川里. . . 英馬野. . . 所以號英馬野者 品太天皇 此野狩時 一馬走逸 勅云 誰馬乎 侍從等對云 朕君御馬也 卽號我馬野 (F: 278)

하리마 풍토기에는, 호무다(오오진)가 사냥을 하다가 말 한 마리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시종들에게 누구의 말인가를 물어보니, 시종들이 호무다 자신의 말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리마 풍토기는, 이런 연고로 그곳을 “내-말-뜰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sup>20</sup> Kidder (1985: 106) 인용.

<sup>21</sup> 廣開土王碑文 十七年丁未 教遣步騎五萬

만든 하니와 (토용 埴輪) 등이 분묘의 내부와 주변에 묻혀있었다.<sup>22</sup>

Egami(1964: 52)는 이 모든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쌀 농사를 짓던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토착적 발전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야요이 사회 스스로가, 자신들 전통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정도로 외부의 문화를 의도적으로 수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전환은,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열도가 정복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Kidder(1985: 121)는 "5세기 중반 이전의 모든 마구류는 외국에서, 즉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Farris(1998: 78-79)는 "초기의 마구류는 간단한 투-피스 재갈과 철과 나무로 만든 등자 등인데, 이들이 모두 북큐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건너왔음을 시사한다. 5세기 전반의 말 안장과 마구류 대다수는 아마도 한반도에서 만든 제품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Barnes(1993: 227)는 "횡혈 석실분은 백제 지배층에 의해 5세기 초에 일본열도에 도입된 것"이라고 말한다. 후기 고분시대의 개시는 오오진과 그의 아들 다투쿠의 거대한 무덤으로 상징된다. 수많은 노동력을 동원 해서 평지에다 흙을 쌓아 올려 거대한 분묘를 만들었는데, 그 모양은 전방 후원형, 혹은 원형이었고, 분묘 주위는 독을 쌓고 해자로 둘러쌌다.

Mizuno에 의하면, 이러한 거대한 분묘들의 출현은, 수많은 전통적 공동체들이 하나의 강력한 지배자 아래 통일되었음을 의미하며, 또 새로운 지배자가 피정복자들 마음속에 경외감을 심어, 신생 국가의 절대적 지배자로서 피정복자의 복종을 받아내기 위해 것처럼 거대한 분묘를 세웠음을 의미 한다.<sup>23</sup> Barnes(1988: 16)는 "팔찌와 청동 거울 같은 의례적인 품목들이, 보다 실용적인 도구와 무기로 바뀐다는 것은, 5세기 지배층의 위상과 세력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후기 고분시대 문화는 야마도 왕국이 이룩한 것이다.

일본열도의 고분 발굴물을 분석해 보면, 각종 철제품, 철 덩이, 대장간 도구들을 위시해, 경첩과 대갈못을 사용하는 새로운 철 공법, 어려운 모양을 단조 하는 능력을 시사하는 물증 등이 5세기가 시작되면서 극적으로 증가한다. Barnes에 의하면, (오오진의 부속 묘인) 아리야마 고분 한 개에서만, 철로 만든 검과 각종 철제 도구가 3,000점

<sup>22</sup> Kidder (1985: 98-99) 참조.

<sup>23</sup> Hiroshi (1969: 72) 참조.

이상 나왔다.<sup>24</sup> Farris(1998: 71-73)는, 일본에 있는 모든 유형의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철의 양이 5세기 초에 극적으로 증가하는데, 6세기에 사철(砂鐵)이 발견될 때까지는 이들 철의 공급원이 한국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사철이 발견되기 이전의 일본열도에서는 철의 생산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철은 덩어리 형태로 가야 혹은 백제로부터 수입이 되었던 것이다. Farris는 “초기 일본 사회가 철, 철제 무기, 각종 철제 도구, 철을 만드는 기술자, 등을 한반도 남부 국가들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사실은 매우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금 역시 8세기가 될 때까지 일본열도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철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로부터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했었다.<sup>25</sup>

새기줄 문양의 조몽 토기와 민 무늬의 야요이 토기가 각기 전 단계의 시대들을 대표하듯, 경질의 스에키 토기는 후기 고분시대를 대표한다. Kidder(1985: 103-4)는, 스에키가 애초에 한국 제품이었으며, 이 경질의 토기가 일본열도에 등장하는 것은 마구류가 고분에서 출현하는 시점과 일치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일본열도에서 가장 오래된 스에키가 (굽는 가마와 함께) 큐슈의 후쿠오카 현에서 발굴되었는데, 이들은 4세기 말 혹은 5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Farris(1998: 85)에 의하면 “경질 토기가 일본에 도입되는 시기와 철 제품 생산이 대폭 확산되는 시기가 대략 일치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들 제조기술은 모두 고온에서 열처리를 하고 성형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고온에서 철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고온에서 경질 토기를 만드는 기술로 원용된 것이다.

Barnes에 의하면, 스에키는 옛 부터 조선-토기라고 계속 불려왔는데, 바로 얼마 전인 1950년대에 와서 일본 사람들이 새삼 8세기 만요슈(萬葉集)에서 그릇을 지칭하는 스에라는 표현을 택해 스에키라 부르기 시작했다.<sup>26</sup> 후기 고분시대 300년을 대표하는 유물을 계속 “조선 토기”라 부른다는 것은 현대 일본인들이 심리적으로 도저히 감내할 수

<sup>24</sup> Barnes (1983: 4. 245) 참조. 놀랍게도 Edwards(1983)는 아리야마 고분을, 대륙적인 유물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묘라고 분류한다.

<sup>25</sup> 神功 攝政五十二年 秋九月 久氏等...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便取是山鐵以永奉聖朝 (NI: 359) 698년(혹은 708년)에 동광이 발견되기까지 일본 열도에서는 동도 생산이 안되었었다. 일본에는 아예 “청동기 시대”라는 것이 없다.

<sup>26</sup> Kidder(1985: 103-4)와 Barnes (1983: 7. 256)를 참조.

없는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7</sup>

### 선진 농경 기술이 가능케 한 거대한 분묘의 조성

일찍이 변한 (가야) 사람들은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인 원주민들과 함께 야요이 문화를 전개 했었다. 4세기 초, 가야 사람들의 새로운 유입과 동시에 일본열도 사람들은 최신 가야식 고분을 논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만들기 시작하여, 초기 고분시대를 전개했다. 4세기 말, 일본열도에 건너온 백제 정복자들은 원주민들 매장 풍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새로운 지배자들은 평지에도 극적으로 과장된 거대한 분묘를 조성해, 주위에 해자를 파고 흙으로 독을 쌓아 둘러쌌으며, 작은 부장 묘들을 만들어 제사용 부장품들을 묻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규모의 분묘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기원전 400년경에 시작한 소 빙하기는, 급기야 가야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을 찾아 바다를 건너게끔 유도하였다. 한반도 남부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들은, 남쪽 큐슈로 이주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런 기후 조건의 변화로 야기된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반면, 기장-보리 경작지대 경계선 바로 아래인 한반도 중부의 한강 유역에서 쌀을 재배하던 농부들은 (눈 앞에 남쪽 나라 큐슈를 그저 쳐다 만 보며 천년 이상 살아온 가야 사람들과는 달리) 시간이 걸리지만 새로운 기후 조건에 적합한 종자를 개량한다거나, 대규모의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길고 깊게 파서 강물을 끌어들이고, 나무 쟁기나 가래 끝에 U자형의 철 날을 돌려 씩워 (높이나 강물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의) 단단한 땅을 새로 개간하여, 기후 조건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sup>28</sup>

일본열도의 야요이 농부들은, 한반도 남부의 가야 친족들 모양, 천연적인 늪지

<sup>27</sup> 한반도 사람들은 기원후 1세기 중 어느 때 인가 900-950°C에서 구워지는 회색이나 붉은 색의 와질 토기(瓦質土器)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1세기에서 3세기 사이 어느 때 인가 좀더 높은 온도(950-1150°C)에서 굽는 경질 토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Barnes (2001: 121-3) 참조. 하리마 풍토기(F: 326)는, 호무다가 순행을 하던 중 "토기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흙"을 발견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다.

<sup>28</sup> Farris (1998: 82)에 의하면, 중국 대륙에서는 논농사를 위한 인공 저수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물 만 끌어들여서도 일년 내내 기장 (조, 수수) 밭과 쌀 논에 물을 충분히 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에 배수로 만들어 논농사를 짓거나, 혹은 늪지대 주위의 저지대 마른 땅에다가 (일년 내 내 물에 잠겨있는) 천연의 늪지대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쌀을 재배했었다.<sup>29</sup> 그러나 기원전 18년경에 한반도 중부에 수립된 백제 왕국 사람들은 대규모의 인공 저수지와 깊은 수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이용하고, 날카로운 철제 낫이나, U자형의 철 덮개를 씌운 나무 쟁기, 가래, 괭이 등을 대대적으로 사용하는 선진 농경기법을 일본열도로 가지고 올 수 있었다.<sup>30</sup>

목제의 가래, 괭이 끝 부분에 U자형의 철 날을 둘러 씌우는 기법은 춘추시대 (기원전 722-481) 말에 초 나라에서 출현하여, 중국 북부로 퍼져나가 결국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기원전 400년경에 철기시대가 시작되면서, 요동지역 전체와 한반도의 청천강 이북에서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에서는 기원전 1세기까지 대부분 목제 농기구를 사용했으며, 철제 낫은 기원후 1세기가 되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31</sup> U자형의 쇠 날은 1세기 초에 한반도 북부에 출현하였으며, 3세기에 와서는 남쪽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한반도 중부의 백제 지역에서 나타났고, 마침내 보다 남쪽인 신라와 가야 지역으로 퍼졌다. 백제 농부들이 다양한 새로운 철제 농기구와 관개용 저수지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등, 한반도 중부의 농경기술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은 3-4세기 중 이었다. 한강 유역에서는 농기구 형태의 토착적 혁신이 이루어

<sup>29</sup> Imamura (1996: 134-5)

<sup>30</sup> “낫”은 옛 한국말로 “나스”였는데, 여기서 옛 일본어인 “나타”가 유래된 것 같다. 하리마 풍토기에는 백제로부터 도래한 아야 씨족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아야베라는 마을을 만들어 정착하고, 이 지방 사람들에게 최초로 풀이나 곡식을 벨 때 쇠로 날을 만든 낫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온다.

漢部里. . .漢人等 到來居於此處 故號漢部. . .伊和里 所以號手刈丘者. . .韓人等始來之時 不識用鎌但以手刈稻 故云手刈村 (F: 268-70)

당시에는 쇠붙이를 다루는 대장간 일을 한반도를 지칭하는 가라(韓)의 가누치(鍬)라고 불렀다.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에 의해 철제 무기와 각종 철제 농사기구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후기 고분시대가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언어학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다.

<sup>31</sup> 한국 국립 문화재 연구소(NRICP, 2001: 226-7)는 한국 농업사 전문가들에 의해서 행해진 연구 성과를 요약하였다. (J. H. Kim, 2000; H. H. Lee, 1998; K. E. Kim, 1987; and K. K. Chee and S. M. Ahn, 1983).

졌고, U자형 쇠 날을 붙인 삽 또는 쟁기가 4세기 백제 유적지에서 발굴된다.<sup>32</sup> 한반도 남부의 신라에서는 쟁기의 사용이 좀 더 늦은 편이었다.<sup>33</sup>

일본열도에서는 U자형의 쇠 날을 둘러 씌운 삽과 괭이가 후기 고분시대 유적지에서만 발견되고, 야요이 혹은 4세기 초기 고분시대의 유적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sup>34</sup> 목제 농기구에 쇠 날을 부착해 사용한다는 발상을 일본열도에 들여 온 것은 4세기 말의 백제 사람들이었다. 목제 삽이나 괭이에 U자형의 쇠 날을 부착하면, 깊이 삽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늪 지대나 하천으로부터 관개용 도랑들을 보다 깊게 팔 수 있다. U자형의 쇠 날을 둘러 씌운 삽은 좀더 많은 흙을 퍼 올려 높은 제방을 쌓을 수 있고, 대규모의 관개용 저수지 건설을 가능케 한다. 굳은 땅의 토지도 쉽게 갈아엎을 수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천연 늪 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지대에 위치한 비옥한 땅을 저수지-관개수로 건설을 통해 논 농사에 생산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유난히 호무다와 그의 아들 다투쿠 치세 때, 독과 저수지, 관개 용수로가 대대적으로 축조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호무다는 (396년경)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하여금 관개용 저수지를 건설하게 한 다음, “백제지(百濟池)”라고 이름 지었다. 일본서기는 오오진 11년(400년경)에 네 개의 저수지를 더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다투쿠 11년에 엄청난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광범위한 수로 시설과 함께 마무타라는 거대한 제방을 축조했다. 고사기에 의하면, 다투쿠는 백제에서 건너온 하다 씨족을 시켜 또 다른 수로와 2개의 저수지를 추가로 건설하게 했다.<sup>35</sup> Farris

<sup>32</sup> Farris (1998: 81-82) 참조.

<sup>33</sup> U자형의 쇠 날을 둘러 씌운 삽과 괭이의 농기구들이 통일 신라시대에 본격적으로 개량되어, 20세기 중반까지 한국 농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sup>34</sup> Barnes (1993: 187) 참조.

<sup>35</sup> 亦新羅人參渡來 是以...命引 率 爲役之堤而作百濟池 (K:248)

應神七年 高麗人百濟人任那人 新羅人並來朝 時命...領諸韓人等作池 因以名池號韓人池 (NI: 367)

應神十一年 作劬池 輕池 鹿垣池 廐坂池 (NI:369)

仁德十一年 掘宮北之郊原引南 水以入西海 因以號其水曰堀江 又將防北河之滯 以築茨田堤 是時 有雨 處之築而乃壞之難塞時 天皇夢有神誨之曰...二人以祭於河伯 必獲塞則覓二人而得之 因以禱于河神 (NI: 395)

(1998: 82)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5세기 초부터 중엽까지 사이에 일본열도의 주민들이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자신들의 환경에 응용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철제 호미와 삽들은 대부분 북큐슈, 오카야마, 그리고 특히 키나이(畿内)의 고분들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한반도의 원형과 구분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Farris는 또, “학자들은 오사카의 후루이치 지역에서 야요이 농부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수로를 판 흔적을 발견 했다”고 말한다.

백제의 선진 농경기술 덕분에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대량의 노동력이 전통적인 논 농사로부터 방출되어 거대한 분묘를 건설하는데 동원될 수 있었다.<sup>36</sup> 저수지와 수로를 깊이 파고, 대량의 흙을 퍼 올려 제방을 쌓으면서 축적한 기술은 곧바로 거대한 분묘를 만들고 해자를 두르는데 적용되었다. 새로운 영농기술은 많은 수의 새로운 지배 층과 관료들, 군인들, 기술자들, 땅 파는 인부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잉여 농산물을 생산 하였으며, 이들 모두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후기 고분문화”라 부른다.

### 백제에서 전래된 제철 기술

일본열도에서는 야요이 시대에도 철 덩이를 한반도 변한 지역에서 수입해 철 제품을 만들어 사용 했었지만, 각종 철제기구와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대량 사용되는 것은 야마토 왕조가 수립된 4세기 말 이후이다. 하지만 6세기에 사철(砂鐵)이 발견되기까지는 자체적인 철 생산이 없었고, 철괴를 계속 백제와 가야에서 수입해서 사용했다.<sup>37</sup> 일본

---

又役秦人作茨田堤及...又作丸邊池 依網池 又掘難波之堀江而通 海 又掘小椅江... (K: 266)

당시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판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신라 사람들이 영천(永川)에 있는 저수지를 수리하고 난 다음 세운 청제비(菁堤碑)를 보면 이러한 관개시설 공사 얼마나 거창한 사업이었던지를 알 수 있다. 이 신라 제방은 536년에 건설되고, 798년에 수리되었다. 수리 작업은 2월 12일부터 시작해서 4월 13일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기간 중, 136명의 도끼질 하는 기술자, 법공부(法功夫, 촌락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法幢 소속 군인) 14,140명, 그리고 주변의 절화(切火, 영천)군과 압량(押梁, 경산)군에서 잡역부 [...]여명, 등이 동원되었다.

永川 菁堤碑 貞元十四年...堤傷故...了治內之 都合斧尺 百卅六 法功夫 万四千百卅人 此中典..角助役 切火[永川]押 [梁]二郡 各口人尙起使內之節... (韓國古代金石文二: 30-31)

<sup>36</sup> 쌀 생산의 급속한 증대는 인구의 빠른 증가를 의미한다.

<sup>37</sup> Peter Bleed (KEJ, 1983: 3.332)

열도에는 철광은 아주 희소하지만, 사철은 풍부하게 발견된다. 초기 형태의 타타라-부키 제철기술은 한반도로부터 도입된 제철공법이다.<sup>38</sup> 제철 공정에서 손-풀무를 사용한다는 발상은 한반도에서 전파된 것이다.<sup>39</sup> 일본서기 642년 조를 보면 소가 대신이 백제 왕자에게 철괴 20개를 선사하는 기록이 나온다. 그 동안 백제에 신세 진 것을 갚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 같다.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鎭川郡 德山面 石帳里)에서 3-4세기 경에 해당하는 제철관련 유물과 유구가 7개의 장소에서 발굴되었다. 제련로(製鍊爐), 용해(鎔解)로, 단야(鍛冶)로 등이 모두 함께 석장리 일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제련-정련-단야 등 일련의 종합 철 생산 공정들이 한 장소에 모여있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백제에서는 제철과 철 가공 산업이 이미 3-4세기경에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0</sup> 이 유물들을 보면, 6세기 말 이후에 일본열도에서 사용된 제철공법이 석장리에서 발견된 옛 백제 공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열도의 제철공법은 (일본 학자들의 가장 즐겨 쓰는 어법인) “중국 으로부터--한국을 거쳐”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백제에서 전래된 것이다. 중국 본토에서는 고탄소 고로(高爐 blast furnace) 제철방식이 사용되었었고, 한반도에서는 본질적 을 상이한 스키토-사베리안 유형의 저탄소 괴철로(塊鐵爐 bloomery furnace) 제철방식이 사용되었었다.

일본열도에서는 698년 (혹은 701년) 이전에는 금의 생산이 없었고, 697년 (혹은

<sup>38</sup> “타타라”는 발-풀무(踏鞴, ふみ-ふいご), 부키(후키)는 바람을 불어 넣는다(吹き)는 뜻이다. 노(爐) 내부에 사철(砂鐵)과 숯을 넣고 풀무로 바람을 불어 넣으면, 노의 바닥에 쌓아 놓은 숯으로부터 불이 타오른다. 시간이 지나면, 노 안으로 불어 넣는 바람으로 내부 온도가 올라 사철이 스펀지 모양의 단단한 철 혹은 연철(鍊鐵)로 전환된다. 이따 곰 씩 하부에 설치된 관으로 쇠 찌꺼기가 배출된다. 마지막으로 노를 깨, 바닥에 고인 철을 꺼낸다. 소위 타타라 공법의 변형은 일본열도에서 19세기 말 까지도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Makino Noboru (KEJ, 1983: 3.332-3) 참조.

<sup>39</sup> Leonard Lynn (KEJ, 1983: 7.348)

<sup>40</sup> 석장리 유물을 보면, 좌우 6.4x6.0 미터 크기의 구멍이를 판 다음, 그 위에 2 개의 장방형 (相形)로(爐)를 설치하였다. 2 개의 로 중에 큰 것은 제철로이고, 작은 것은 제철 다음 단계의 공정을 위한 노이다. 석장리 원형로의 지름은 1.0 미터 정도 되며, 점토로 로(爐) 벽을 만들고, 경사면 아래쪽으로 철 찌꺼기를 배출하는 관을 부착했다. 철광석과 사철이 모두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조개 껍질, 짐승 뼈 등 석회 물질 혹은) 석회석을 제련시 용융점을 떨어뜨리고, 탄소 함량을 낮추기 위해 사용했었다. 용해로에서는 쇠도끼 머리 거꾸집 조각(鐵斧范芯片)이 발견되거나, 소량의 슬래그가 발견되었다. 단야로에서는 단조 철조각(鍛造剝片)이 발견되었다. NRICP (2001: 641-2) 참조.



708년) 이전에는 동 의 생산이 없었다. 금의 제련은 속일본기 698년 조에 나오는데, 대마도에서의 금의 발견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다이호(大寶) 원년은 701년이다. 동 의 생산은 속일본기 697년 조에 처음 나오는데, 무사시 에서의 동 의 발견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와도(和銅) 원년은 708년 이다. Farris(1998: 73)가 철과 관련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했던 것처럼, 야요이와 고분 시대에 걸쳐 일본열도가 인류 문명의 핵심 금속 물질인 금, 동, 철 모두를 가야와 백제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사실의 의미는 정말로 심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고고학적인 단절 현상: 급작스런 사건에 의한 것인가 혹은 점진적 진화 과정의 산물인가?

Egami의 기마민족설을 증오하는 학자들에게는, Edwards(1983)가 대학원 학생 시절에 쓴 논문 한 개가, Egami 같이 훌륭한 학자의 평생 연구 결과를 모두 불신해 버리기엔 충분한 근거로 간주된다. Edwards는 고고학적 단절현상의 대표적 증거인 경질토기-마구류 등의 출토가 「4세기 말 혹은 5세기 초」가 아니라 「5세기 말」에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변화가 절대로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오히려 Egami가 초기와 후기의 유물 사이에 무슨 커다란 단절이 나 있는 것처럼 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1983년에 Edwards의 논문이 나타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주장은 아주 몰비판적으로 수용되고, 그의 말은 열광적으로 되풀이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Farris(1998: 78-9)는 “마구류는 4세기 중엽, 혹은 말엽의 정복이라는 사건과 관련 시키기에는 너무나 늦게 나타날 뿐 아니라, 일본 열도에서의 마구류의 확산은 매우 점진적이었다”고 주장한다.<sup>41</sup>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Edwards 논문의 핵심 내용을 검토 해 본다.

Edwards(1983)는 Egami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137개 고분의 고고학적 자료를 표로 만들어 제시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Edwards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연출한 자료 표를 나 같은 사람이 보면, 오히려 Egami의 2분 법을 정당화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Edwards는 Egami와 정 반대로, 중기 고분시대는 초기와 합쳐져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중기의 그 거대한 고분들이 상징하는 강력한 정치권력

<sup>41</sup> 언어학자인 Unger (2001: 84-5) 역시 “기마민족설을 비판하는 Walter Edwards와 Gina L. Barnes의 글을 읽고, 나도 몇 해 전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을 기마 민족의 정복이라는 “사건”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Egami를 반박했다.

Edwards 자신이 직접 정리해서 제시한 고고학적 자료 자체를 검토해 보면, 대략 “5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대륙적”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일본식 표현) 유물이 발굴된 여러 개의 고분들이 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dwards는, 고분 부장품들이 “현저하게” 대륙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5세기 중반 이후”이며, 오오진의 능이나 다투쿠의 능은 기마민족의 능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dwards는 자신이 5세기 중엽으로 추정하는 대륙적 문물의 유입이 실제로는 4세기 중에 발생했을 수도 있고, 따라서 4세기 역사의 틀에 연관 지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Edwards는, 어찌 되든 간에 오오진과 다투쿠의 능을 포함하는 모든 전통적인 중기고분들은 경질토기-마구류로 대표 되는 대륙적인 문물의 유입에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기고분들은 기마민족의 성격이나, 어떤 다른 두드러지게 대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42</sup> 그러나 오오진-다툼쿠 등 전통적 중기고분들의 기마민족적(대륙적)인 성격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 할 수 있다.

첫째로, 일본서기의 유라쿠(雄略) 조에는 오오진 능에 말 모양의 하니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적혀있다. 즉, 하쿠손이라는 사람이 출산한 딸 집에 갔다가 말을 타고 밤에 귀가를 하던 중, 오오진 능을 통과할 무렵, 붉은 색의 말을 타고 자신의 점박이 말을 따라잡아 쏘살같이 앞서 가던 사람이 되돌아 와, 말을 교환하자고 말했다. 하쿠손은 기쁜 마음으로 말을 교환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 그 준마를 마구간에 넣고 잠이 들었다. 그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놀랍게도 그 붉은 색 말은 흙으로 빛은 하니와로 변해있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니, 자신의 점박이 말이 오오진 능의 (말 모양) 하니와들 사이에 매여 있었다. 일본서기의 기록이다.<sup>43</sup>

두 번째로, Barnes에 의하면, 1872년에 다투쿠 능의 한 귀퉁이가 흙 사태로 무너져 내려, 수혈식 석실의 일부가 드러났다. 그 다투쿠 능에서 출토되었다는 철제 갑옷과 무기류, 청동 장신구, 청동 거울, 원형 고리 칼, 말방울, 등이 현재 보스톤의 박물관에 보

<sup>42</sup> Edwards (1983: 273, 283, 284, and 286) 참조.

<sup>43</sup> 雄略. . .伯孫女者. . .產兒 往賀塚家 而月夜還 於. . .譽田陵下 逢騎赤駿者. . .仍停換馬. . .驟而入廐. . .其明旦 赤駿變爲土馬. . .還覓譽田陵 乃見驄馬 在於土馬之間 (NI: 485)

존되어 있다.<sup>44</sup> Kidder(1985: 102-3)는, 천황 능의 발굴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고학자들에게는 이들 유물의 발견-보존은 정말 뜻밖의 행운이라면서, 닌투쿠 능에서 나왔다는 조그만 말방울과 말 머리 모양의 하니와는 바로 기마민족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된다고 말한다.

세 번째로, Kidder(1985)는 기마민족적 성격을 가진 고고학적 물증만을 특별히 한데 모아 그 목록을 작성했는데, 이들은 모두 “5세기 초” 야마도 왕국의 오오진-닌투쿠 시대와 관련되는 것으로 믿어지는 고분들에서 발굴이 된 것이다. 마루야마 고분(오오진 능의 부속 능)에서 발굴된 금동장식 안장, 닌투쿠 능에서 발굴된 청동의 말 방울과 말 머리 모양의 하니와, 료오난 유적지에서 발굴된 두 개의 목제 안장과 땅딸막한 말 모양의 하니와, 그리고 리츄(履中) 능의 부속 능에서 발굴된 안장, 재갈, 등자, 청동 고리 등이 목록에 들어있다.<sup>45</sup>

Edwards 자신도, 대륙의 (즉 한반도의) 선진적인 측량술과 건축술이 없었다면 중기의 거대한 고분들은 축조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Kobayashi(1955)의 주장뿐 아니라, 중기 고분들에서부터 철제 유물의 숫자가 극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지적한 Mori(1965)의 주장을 인용한다.<sup>46</sup> 그러나 놀랍게도, Edwards는 기내(畿内) 지역에서 출현한 토착세력이 먼저 한반도를 침략하여 철을 얻어가고 돌아와서, 그 철로 무기와 갑옷을 만들어 일본열도를 통일하게 되었다는 Inoue(1960)의 주장을 인용하고 만다.<sup>47</sup>

일찍이 Egami(1964: 51)는 “(정복 활동을 수행할 만한 군사적 요소가 없는) 초

<sup>44</sup> Barnes (KEJ, 1983: 6.8)

<sup>45</sup> Kidder(1985: 100)는, 나무틀에 금동 장식을 한 안장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과 유사한데, 아마도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Edwards(1983: 275, 295)는 마루야마 능의 축조 시기와 내용물의 성격을 4세기말로 추정하면서, 이 마루야마 능은 대륙적 성격이 두드러진 유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능으로 분류를 했다. Edwards는 또, 금동으로 장식한 안장이 마루야마 능에서 발견은 되었지만, 부속 능을 주 무덤(오오진 능)과 동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무덤은 5세기 중엽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하여, 자신이 만든 표의 내용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sup>46</sup> Edwards (1983: 289) 자신도, 고분들의 크기는 한국에서 사용되던 길이 계산법의 배수로 되어있다고 말한다. Kidder(1985: 95)는 초기와 후기 고분들 모두가 설계와 건설에 고구려 척도(고마척, 35-36 cm)를 적용했다고 말한다.

<sup>47</sup> Edwards (1983: 288-290)

기 고분시대 일본열도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에 상륙하여 무장이 훨씬 잘된 그곳 사람들을 정복하는데 성공을 하고, 거기서 기마민족 문화를 배양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 통일을 했다는 발상은, 역사의 일반적인 법칙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 가야(가락)와 백제: 두 개의 상이한 이주 물결의 주역들

김기웅(1986)은, 언덕 위에 위치한 수혈식 석실의 초기고분들은 3세기 혹은 4세기의 가야 고분과 일치하지만, 평지에 위치한 횡혈식 석실의 후기고분들은 백제의 고분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초기고분에서 발굴된 장식품들은 가야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부장품들과 유사하지만, 후기고분에서 발굴된 장식품들은 백제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것과 흡사하다고 말한다. 또, 한반도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철제 등자는 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본열도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등자는 5-6세기의 것이라 한다.<sup>48</sup>

Oka Masao에 의하면, 알타이어 계통의 친족을 의미하는 (통구스 방언의 "친족 무리"를 의미하는 "샤라"에 어원을 두고 있는) "카라"라는 낱말은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본열도에 도입되었으며, (한국어의 "친족 무리"를 뜻하는 "울," 통구스어의 "자손"을 뜻하는 "우루"를 의미하는) 또 다른 낱말인 "우지"는 4세기에 알타이 왕족문화와 함께 도입되었다. Masao는 한반도로부터 명백하게 두 개의 다른 이주 물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sup>49</sup>

3세기 말에 편찬된 위서 동이전은, 변한 12개 나라의 "남녀들"이 "왜인"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했다고 말한다.<sup>50</sup> 그러나 7세기 초에 편찬된 양서(梁書)는 "백제"가 "야마도"와 가깝기 때문에 많은 백제 사람들이 문신을 한다고 말한다.<sup>51</sup> 일본열도에 600년 야요이 시대를 전개한 것이 변한 (가야) 사람들이고, 야마도 왕국을 세워서 300년의 후기 고분시대를 전개한 것이 백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중

<sup>48</sup> 김기웅 (1986: 76, 88-9, 96-97, 99-101, 105-106, 112, 120-1, 129) 참조.

<sup>49</sup> Ōbayashi (1985: 13-14)

<sup>50</sup>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弁辰傳 . . . 男女近倭 亦文身

<sup>51</sup> 梁書 列傳 東夷 百濟 . . . 其國近倭 頗有文身者

국 사서에서 이렇듯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를 보게 한다.

키다바다케 치카후사(1293-1354)는, 이른바 야마도 왕국의 남북조 시대 때 (1331-92) 남조의 정치적 사상적인 지도자였다. 그는 1343년에 역사책을 한 권 저술하였는데, 오오진(應神) 조를 보면, “옛날 일본 사람들은 삼한 사람들과 같았다”고 주장한 책들은 모두 간무(桓武 r.781-806) 때 소각되었다고 기록을 했다.<sup>52</sup> 현대의 역사가들은 키다바다케가 이런 얘기를 왜 특별히 오오진 조에서 말했을까 관심을 갖고, 또 스스로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 후기 고분시대를 전개한 백제 사람들 이주 물결의 “타이밍”: 왜 4세기 말인가?

나는 대략 기원전 400년경에 갑작스레 출현한 소 빙하기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변한(가야)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하고 좀더 비가 내리는 땅을 찾아 바다를 건너가게 했다고 “야요이 이주 물결”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일본열도에 (후기) 고분시대를 전개한 백제 사람들 이주 물결의 “타이밍”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4세기 말에 백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대한해협을 건너갈 생각을 했는가? 근초고왕이나 호무다 같은 정복자의 출현이 순전히 역사적 우연인가 혹은 어떠한 환경 변화의 산물인가? Ledyard (1975)의 주장 보다 좀더 한국 역사와 일관성이 있는 인과관계를 설정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백제 사람들 이주 물결의 타이밍을 추정하는 일종의 동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소 빙하기의 종료 여파로 전염병의 만연, 혹은 극심한 가뭄 같은 기상 조건의 불규칙성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sup>53</sup> Lamb(1995: 168)에 의하면,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동 아시아에서도 300-400년 사이와 800년경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가뭄이 최고조에 달했고, 그 극심한 가뭄은 정교한 수리시설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던 농경지대를 황폐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와 같이 급격한 기후 변화는

<sup>52</sup> 應神 . . . 昔日本ハ三韓ト同種ナリト云事ノアリシカノ書ヲ桓武ノ御代ニヤキステラレシナリ. 六地藏寺本, 北畠親房 神皇正統記 (Tokyo: Kyuko), p. 28.

<sup>53</sup> 지구학자 Ruddiman(2003)은 소 빙하기가 끝난 직후에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한강 유역의 백제 농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sup>54</sup>

다음은 백제에서 발생한 한발과 기근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록이다.<sup>55</sup> 316년 봄, 한해(旱害)가 있었다. 321년 7월, 사막의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다. 331년 봄과 여름, 한발(旱魃)이 너무 심해 강이 말랐고, 흉작으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 380년, 전염병이 창궐했다. 382년, 6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 봄에 혹독한 한발이 있었으며, 굶주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팔았다. 386년에는 7월, 서리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다. 402년의 여름, 혹독한 한발로 벼가 말라 죽자 백제 왕이 기우제를 지냈다. 신라본기도 302년, 313년, 317년, 372년, 381년, 397년과 401년에 한발과 기근이 있었으며, 또한 389년의 7월과 399년에는 사막의 메뚜기 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다는 기록을 한다.

400 BCE-300 CE에 걸친 소 빙하기가 종결되자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300-400) 가뭄이 최고조에 달했다.<sup>56</sup> 중국 대륙에서는 한족 서진(265-316) 왕조가 멸망하고 5호 16국의 혼란기(304-439)가 시작된다. 서양에서는 중앙 아시아 초원지대의 가뭄으로부터 야기된 연쇄 반응이, 375년 훈족의 유럽 침입으로 이어져, 395년에는 로마 제국이 양분되고, 476년에는 서 로마 제국이 소멸된다. 300년경부터 시작된 가뭄의 악화는, 4세기 초에 한반도 남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습한 일본열도에 있는 친족들과 새삼 합류할 생각을 하게 만들어 초기 고분시대를 전개시켰을 수 있다. 가야 사람들의 새로운 이주 시도는 가야식 초기 고분문화의 전개와 일치한다. 전투적인 백제 지배자들 영도하의 보다 혁신적 한강 유역 농부들은, (369년에) 한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마한을 정복하고, 일부는 일본열도로 건너가 후기 고분문화를 전개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진 농경기술이 한

<sup>54</sup> Lamb(1995: 159)은 “중앙 아시아 유목민들 생존의 터전인 목초지가 말라버리자 야만족들과 새삼 떠돌이 신세가 된 종족들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켜 이들로 하여금 서쪽의 유럽으로 향해 이동하게 만들었으며, 결국은 로마 제국의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Huntington 의 견해를 인용한다. 소 빙하기가 끝나자, 북반구 북위 35° 아래 대부분 지역이 따뜻해졌으나, 적도 부근에서 형성된 비구름의 북방 이동이 미약하게 되어, 극심한 한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시기는 중남미에서 마야 문명이 번성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즉 한쪽 사람들에 대한 저주는 다른 쪽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다.

<sup>55</sup> 삼국사기는, 대략 293-342 년 기간 중, 모용 선비와 통구스 고구려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전쟁을 기록한다. Farris(1998: 77)는 “처음으로 말을 전투에 사용한 한국 사람은 선비와 싸웠던 고구려 군사들”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말 등자를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었다고 말한다.

<sup>56</sup> Lamb (1995: 159, 161-2) 참조.

반도 남부에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특히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일본 열도에서는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정확히 예상했을 수 있다. 대규모 인공 저수지와 U자형의 철 날을 둘러 씌운 나무 쟁기, 삽 등을 사용하는 백제의 선진 농경기법 덕분에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대량의 노동력이 전통적인 농농사로부터 방출되어 거대한 분묘를 건설하는데 동원될 수 있었다.

### 한반도에서 건너온 문물의 항목들

Farris(1998:68-70)는 고분시대 전반에 걸쳐서 한반도로부터 일본열도에 유입된 각종 도구와 물자, 생산기술, 정치제도, 종교, 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본래 한반도에서 만들어져 원형 그대로 일본열도에 유입된 것으로, 철과, 철 제품을 만드는 기술, 갑주, 철제 화덕, 청동 방울, 조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칭호와 성 씨들, 지방 행정제도, 농경지 측량법, 산성(山城) 축조 기술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본래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한반도에서 변형되었거나 개량이 되어 일본열도로 건너 온 것으로, 환두 대도(둥근 고리가 손잡이 끝에 달린 칼), U자형의 쇠 날을 둘러 씌운 농기구, 저수지와 수로를 파는 기술, 경질 토기, 비단 짜는 법, 생산-서비스 단위(鄣 베), 법률제도, 문자 등이 있다.

세 번째는, 거의 변형이 되지 않은 채 중국의 원형 그대로가 한반도를 통해 일본 열도에 유입된 것으로, 비늘 모양의 철판 갑옷, 마구류, 돌을 깎아서 맞추는 방법, 분묘 만드는 방법, 금은 보석, 불교, 쇠뇌 등이 있다.

Farris (1998-70)는 “이상 세 가지의 이전(移轉) 형태를 모두 합쳐보면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열도의 고분문화를 형성하는데 원천적인 씨앗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 복식의 급격한 변화

후기 고분시대에 들어와, 일본열도 복식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본서기에 묘사된 아마데라스와 삼국사기에 묘사된 고이 왕처럼, 상당히 많은 수의 (남자 형상)

하니와가 바지-저고리를 입고 있다.<sup>57</sup>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오오진 치세 때 백제로부터 재단사가 도래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sup>58</sup> 이춘계(1991: 741)는 중국 역사책들이 초기(야요이 때)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복식의 상이점을 기록하고, 후기(고분시대)에는 양자의 유사성을 기록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북사(北史)는 [후기 고분시대] 일본열도의 남녀가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는데, 남자 저고리의 소매가 매우 작으며, 여자의 치마는 가장자리에 (주름) 선이 둘러져 있다고 말한다.<sup>59</sup> 여기서 북사는 “예전에는” 바느질을 하지 않은 가로 폭의 천을 그대로 연결해 입었다고 특별히 언급을 했다. 위서 동이전은 [야요이] 왜인들이, 남자는 바느질도 안 한 가로 폭의 천을 단순히 묶어 연결시킨 옷을 입고, 여자는 (홀이불 모양) 넓은 천 한복판에 구멍을 뚫고 머리를 넣어 입었다고 기록 했었다.<sup>60</sup> 다카마쓰즈카(高松塚) 고분의 벽화를 보면, 여자들이 길고 테를 두른 저고리와 주름을 잡은 치마를 입고 있다. Kidder(1972)는 “이 여자들이 입은 옷을 보면 명백하게 한국 여자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쇼소인(正倉院)의 연구 부장인 세키네 신류는 옛날 복식 60벌을 분석하고 나서 고대 한국과 일본의 복식은 똑같았다(渾然一體)고 말했다.<sup>61</sup>

<sup>57</sup> 天照大神...縛裳爲袴 (NI: 105) 古尔王...王服紫大袖袍 青錦袴 金花飾烏羅冠 (S2: 29-30)

<sup>58</sup> 應神 十四年 百濟王貢縫衣工 女...是今來目衣縫之始祖也 (NI: 371) 衣縫猪手漢人刀良等祖將居此處 (F: 290) 又貢 上手人韓鍛名卓素 亦吳服西素 (K: 248)

<sup>59</sup> 北史 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倭國...無城郭...其服飾 男子衣裙襦 其袖微小 履如屨形 漆其上 繫之脚...婦人 束髮於後 亦衣裙襦 裳皆有襪...故時 衣橫幅 結束相連而無縫

<sup>60</sup> 三國志 魏書 東夷傳 倭. . .其衣橫幅 但結束相連 略無縫 婦人被髮屈紛 作衣如單被 窄其中央 貫頭衣之

이시야마 아끼라(KEJ: 1.329)는 “지금의 가가와 현에서 발굴된 야요이 시대 도타쿠(청동 방울 형태의 의례용 물건)에 나타나는 사람 형상의 판화에는 일종의 판초 모양의 옷을 입은 남자들이 묘사되어 있다”고 말한다. 판초는 남미 원주민들이 입는 한 장의 천으로 된 외투를 말한다.

<sup>61</sup> 이춘계 (1991: 742-5)



## 후지노끼(藤ノ木) 고분

후지노끼 고분은 소가 우마꼬(?-626)에게 암살당한 스슌(崇峻 r.587-92)의 능인데, 천황릉의 발굴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도쿠가와 혹은 명치시대 때 천황릉이 아닌 것으로 분류를 잘못하여 본의 아니게 대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호류지(法隆寺)의 부속 사찰인 소겐지(宗源寺)의 오래된 나무함 속에서 엔포(延寶) 7년(1679)의 문서가 발견 되었는데, 이 둔덕을 스슌 천황의 능산(陵山) 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그 둔덕이 스슌의 능이라고 말하는 다른 문서들도 1872년까지 발견 되었으며, 어능(御陵)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까지 쓰였다.<sup>62</sup>

후지노끼 고분은 1985년 말에서 1986년 초 사이에 발굴이 되었는데, 석관의 개봉은 1988년 말에야 이루어졌다. 유골은 20-30대로 보이는 남자 한 명과 (연령 미상의) 여자 한 명으로 확인되었다. (구슬들은 덩어리로 세어서) 무려 10,000여 점의 유물들이 나왔는데, 금동관, 물고기 모양의 장식이 달린 두 쌍의 금동 신발, 두 쌍의 도금한 동 귀걸이, 두 개의 은장도가 안에 부착된 청동 혁대, 416개의 금 펜던트, 반 원통형으로 된 한 쌍의 금동 발 보호대, 4개의 동경, 5개의 칼, 회갈색을 띤 47개의 의례용 경질 토기, 1000여 개의 철갑 조각과 철 화살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상당히 많은 양의 마구류가 석관 뒤편 석실 바닥에 쌓여있었다.<sup>63</sup> 청동거울 한 개에는 “동경 소유자의 후손이 번성하기를”이라는 의미의 3개의 글자(宥子孫)가 새겨져 있었는데, 523년에 사망한 백제의 무녕왕 능에서 나온 동경과 똑같다. Kidder는, “일본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금동관은 한반도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Kidder는 후지노끼 고분에서 나온 유물들이 백제의 유물, 특히 무녕왕 능에서 나온 부장품들과 매우 유사한데, 그들 유물 대부분이 실제로 백제에서 왔을 것이라고 믿는다.

동아시아 역사: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 2012 홍원탁 (洪元卓) 서울대 명예교수 (<http://www.HongWontack.com>)

<sup>62</sup> Kidder (1989) 스슌은 성덕 태자(聖德太子 574-622)의 삼촌이다.

<sup>63</sup> Kidder (1989) 참조.